

May 2007

268

Monthly Art Magazine  
[www.wolganmisool.com](http://www.wolganmisool.com)

# 월간미술



9 771227 312009  
05  
ISSN 1227-3120

## 광주비엔날레, 감독선출 일정 조정 공동감독 선출, 원점부터 생각하기로

내년에 개최예정인 제7회 광주비엔날레 공동 예술총감독 후보 선출일정이 전면 재조정된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이사장 한갑수)은 4월 25일 24명의 이사회가 참석한 가운데 제96회 이사회(사진)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은 이날 2명의 국내감독 후보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국내감독 1인을 선정하기로 되어 있었다.

광주비엔날레재단 측은 공동감독 선출을 보류한 배경에 대해 “일부 이사들이 외국인감독 후보로 선정된 2명 중 1명이 후보를 고사한 상태에서 국내감독만 먼저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내부 협의를 거쳐 공동예술감독후보선정소위원회를 9명 이내



## SYMPORIUM

미술사학연구회(회장 이인범)는 4월 14일 동덕여대에서 봄 정기학술대회를 열었다. 주요발제로 송희경(이화여대)의 ‘조선시대 회화에 나타난 시동상(侍童像)의 유형과 표상’과 박은영(홍익대)의 ‘바넷뉴먼의 <부러진 오벨리스크>’ 등이 있었다.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범하스님)은 4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이탈리아문화원과 공동으로 ‘동·서양 보존과학의 만남’이라는 주제의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박물관 관기념으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안병찬(경주대)의 ‘사찰문화재 보존현황과 미래’, 박자선(용인대)의 ‘한국 불화 및 전적의 보존처리’, 그리고 이탈리아의 보존과학 전문가인 파트리치아 미라콜라의 ‘복원과 보존을 위한 최고수준의 연구학교’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한국미술이론학회(회장 정형민)의 제5회 춘계학술대회가 4월 28일 명지대에서 열렸다. 백진화(경북대)의 ‘마그리트 회화의 라캉적 독해’, 정영목(서울대)의 ‘E.Keith와 G. Warner-판화가와 컬렉터-외국 여성의 눈에 비친 일제시기의 한국’ 등의 발제가 있었다.

한국미술사학회(회장 한정희)는 4월 28일 이화여대에서 제155회 월례연구발표회를 열었다. 양희정(국립중앙박물관)의 ‘한국 팔대 보살(八大菩薩) 도상 연구’와 유근자(한국미술사연구소)의 ‘간디라 향마성도 불진도(降魔成道佛傳圖)의 연구’ 등의 발제가 있었다.

대한임상미술치료학회(회장 김선현)은 4월 28일 베스트웨스턴 강남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주요발제로 미국미술치료학회 Paula Howie의 ‘미술치료의 세계적 현황과 발전방향’, 김선현(포천중문의대)의 ‘동양미술치료의 발전방향’, 서승원(홍익대)의 ‘미술치료-미술의 확장’ 등이 있었다.

서양미술사학회(회장 이한순)는 5월 19일 홍익대에서 제3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연다. 주제는 〈그랜드 투어 : 신고전주의의 열풍과 18세기 유럽의 예술기행〉, 〈그랜드 투어 란 북유럽 젊은이들이 견문을 넓힐 목적으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남유럽 국가로 떠나는 여행을 치는 표현이다.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이 참여할 예정인 이번 학회의 주요발제로 Shearer West(버밍엄대)의 ‘레이놀즈과 그랜드 투어’, Andreas Beyer(바젤대)의 ‘여행-머무름-죽음 : 로마에서의 피테 가(家)’, Kevin Salatin(LACMA미술관, LACMA)의 ‘성(性)과 영원한 도시: 관능의 성지순례로서의 그랜드 투어’가 있을 예정이다.



드로잉 경매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박수근의 〈시장의 여인〉(낙찰 1억200만원)

## 화창한 봄날 맞은 경매소식

박수근, 장르불문 최고의 블루칩 작가임을 재확인

‘한번 블루칩 작가로 올라서면 좀처럼 작품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미술품 경매의 속설은 드로잉 작품에서도 유효한 것인가. K옥선(대표 김순웅)이 4월 11일 진행한 ‘종이작품 & 소품’ 경매에서 박수근의 〈시장의 여인〉(사진)이 1억200만원에 낙찰되어 드로잉 최고가를 기록했다. 또한 소품드로잉 〈노상〉도 2600만원이라는 고가에 낙찰되어 박수근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번 ‘종이작품 & 소품’ 경매는 작품 소장자를 희망하는 이들이 처음에는 드로잉 작품에 관심을 갖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일반인의

이날 이사회는 후보 선출 일정이 너무 늦지 않도록 선정소위 구성은 서면이사회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키로 하고 별도 추천위원 선정 여부는 선정소위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큰 관심을 끌었다.

한편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김종학, 오치균, 이월종, 사석원 등이 추정가를 훨씬 웃도는 높은 가격에 팔렸다고 K옥선 측은 분석했다. 이외 김형근, 황영성, 황용엽, 박항률, 황주리 등이 새롭게 컬렉터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도 이번 경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K옥선 측은 밝혔다.

K옥선은 총 181점이 출품된 이번 경매에서 158점이 낙찰되어 87.3%의 낙찰률(총 낙찰액 8억9600만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 한국의 가구공예디자인, 세계의 인정을 받다

홍익대 최병훈 교수, 스위스 비트라디자인미술관 소장품 작가로 선정

디자인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술관으로 인정받는 비트라디자인미술관(관장 알렉산더 폰 페게작(Alexander von Vegesack)은 지난 2006년 2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위대한 의자, 20세기의 디자인〉에서 최 교수의 작품 2점을 소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미술관에 한국인의 작품이 소장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술관 설립자이자 관장인 알렉산더 폰 페게작(Alexander von Vegesack)은 지난 2006년 2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위대한 의자, 20세기의 디자인〉에서 최 교수의 작품을 처음 접한 뒤, 지난 3월 최 교수의 작업실을 직접 방문하여 소장을 결정했다고 한다. 최 교수의 소재와 기법, 미학적 가치가 미

술관을 대표하는 작품이 되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소장이 결정된 작품은 〈after-image 태초의 잔상 05-222〉(2005)와 〈after-image 07-244〉(2007, 아래사진)이다.

최병훈 교수는 홍익대 응용미술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산업미술대학원에서 가구 디자인을 전공했다. 지금 까지 10회가 넘는 개인전을 가졌으며 1987년 대한공예대 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현재 홍익대 목조형학과 교수와 한국기구학회 회장직에 재임 중이다.



최병훈(위의 사진 왼쪽)과 비트라디자인 미술관 관장 폰 페게작

